

#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탄력

### 새만금개발청,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위한 입주계약 체결 새만금 국가산단 2공구에 내년 10월 완공... 2023년까지 1200명 전문인력 배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이하 센터)' 건립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와 21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새만금에 국내 최대 규모인 3GW급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연료전지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센터는 새만금 국가산단 2공구(1,653㎡)에 오는 11월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비 65억원과 지방비 50억원(전북도 35+군산시 15) 등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지방비 50억원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출연기관으로 센터 건립에 사용하며, 국비 65억원은 전북대학교 신

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가 장비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센터는 2023년까지 1,200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며, 다음 달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우선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재직자 과정(5일), 취업자 과정(20일), 전문가 과정(40일)

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용성 있는 교육을 통해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해 에너지융복합중심지원센터에 이어,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까지 입주하게 돼 새만금 산단이 그린에너지융복합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전문인력양성센터가 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제 수류산골



완주 경천애인



완주 창포



익산 산들강 옹포

## 전북 농촌관광, 농식품부 공모 전국 최다 선정

###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4개소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사업인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전국 최다 규모인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4개소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마을은 김제 수류산골마을, 완주 경천애인마을, 완주 창포마을, 익산 산들강 옹포마을 등 4개소다.

'김제 수류산골마을'은 모악산 금산사 인근에 있는 마을로, 130년의 역사

를 가진 수류성당과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으며, 캠핑장을 겸비해 연중 다양한 관광객이 찾는 마을이다. 역사·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 연자가투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진단 만들기 등 생태·생물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완주 경천애인마을'은 초가집 숙박을 갖추고, 강릉열차 타기와 농사 체험으로 주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농

촌 현장 체험장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최근 치유·힐링 관광이 대두되면서, 마을과 연결한 편백나무 숲을 이용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험객의 연령층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완주 창포마을'은 한옥의 정취와 주변 볼트피자와 연계한 다수의 놀거리로, 연중 방문객이 3만 명에 육박하는 유명마을이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지역 농작물과 미니 수족관을 결합한 '아쿠아포닉스(나만의 작은 어항만들기)'로 농촌체험의 새바

람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익산 산들강 옹포마을'은 농촌마을의 5성급 호텔이라고 불릴 정도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로, 뚝배기 체험과 농사체험으로 지역의 기여도까지 폭넓게 챙기는 알짜배기 마을이다. 금강변의 정취를 바탕으로 트레킹코스를 개발해 코로나 시대의 '걷고 금강생태 바로 알기'에 대한 깨알 재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마을당 최대 2,000만원의 국비가 전액 지원되며,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재료비, 콘텐츠 개발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힐링 숲길여행” 참여하세요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30일까지 접수 선정되면 개별 투어 후 본인 SNS채널에 게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손중호)는 전국의 아름다운 숲길 캠퍼 프로그램 '힐링 숲길여행' 개별 참가자 16명을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여행과 숲길, 등산·트레킹, 백패킹 활동분야의 블로거와 유튜버,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자로,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www.komount.or.kr)에 게시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eh@komount.or.kr)로 접수한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9월 사이에 대관령숲길과 백두대간트레일(홍천구간) 숲길을 개별 투어 후, 사진과 영상 등의 후기를 본인 SNS채널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물 확인 후 일정 금액이 활동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대관령숲길과 백두대간트레일(홍천구간)로 한정한다. 대관령숲길은 평화로운 목장코스(17.15km)와 향기로운 소나무코스(18.23km), 싱그러움 옛길코스(15.40km), 아름다운 구름코스(18.02km)이다.

또, 백두대간트레일(홍천구간)은 광림리길(7.5km), 산새소리가 아름다운 새소리길(6.3km), 고랭지 채소밭의 장춘리길(15.5km), 채종포 단지를 경유하는 자운리길(8.7km), 엄동설한에 딸을 살린 불발령길(8.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힐링 숲길여행'은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숲길 소개자료를 사전에 전달받은 후, 참가자 개별 캠퍼를 실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조사연구실(042-620-6340~1)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약수터 9개소 관리 실태 점검

전북도가 최근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약수터 수질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좁은목, 완산철봉 등 시장·군수가 지정한 약수터 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여부, ▲물탱크·배관 및 음수대 청결 상태, ▲오염원 존재 여부, ▲시설 보수 등을 통한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특히, 약수터 물을 채수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6개 항목에 대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약수터 사용을 중단하고, 이용 중단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후, 약수터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소독 등을 시행한 후 재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약수터 수질이 1년 이상 적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도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군에 약수터를 폐쇄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도, 도서·벽지 어촌지역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전북도가 도서·벽지 어업 현장을 찾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한다.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이동수리소 5개 반을 11월까지 운영하며, 어업인 경제적 부담경감과 해난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월 수리가

가능한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적격한 업체를 선정했으며, 연안 시·군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선용 기관, 어업용 정비, 양식용 정비 소규모 부품 등을 교체·수리할 계획이다.

이동수리소는 3월에서 11월까지 매월 1~2회씩 운영할 계획으로 ▲군산 20회, ▲고창 10회, ▲부안 31회다.

점검·수리가 필요한 어업인은 해당 어촌계 및 수산기술연구소를 통해 순회 일지와 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점검·수리가 필요한 어업인은 해당 어촌계 및 수산기술연구소를 통해 순회 일지와 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